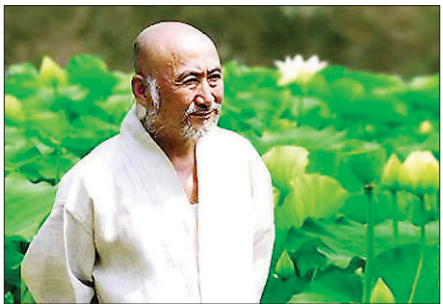


생사의 경계 넘어 구도의 여정 화폭에

범주 스님 선묵 회고전 8월 29일~9월 8일 조계사 나무갤러리서



“2년전 고회전을 끝내고 쓰러진 이후 병마에 시달리며 배운 점이 많습니다. 부처님께서 생로병사를 골고루 맛보라는 뜻에서 이런 고통이 왔구나라고 생각하며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날을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또 고맙게도 병이 나으니 아직 내가 해야 할 일이 남았음을 알고 다시 그림을 그렸죠. 그 결과물로 이번 전시를 열게 되었고 회고록도 내게 되었습니다.”

병고마저도 공부의 시간으로 받아들이는 선화가 범주 스님(사진)은 지난 2년간의 과정을 이렇게 이야기한다. 생사의 경계를 헤매는 고통의 과정을 이기고 작품 세계의 새로운 전기를 맞은 스님은 그간의 결과물

300여점을 대중에게 공개한다. 수좌복지 후원을 위한 ‘범주 스님 선묵 회고전’이 8월 29일~9월 8일 조계사 나무갤러리에서 열린다. 이와 함께 스님은 병마를 이기고 집필한 구도 여정 <나를 찾아 붓길을 따라서>(운주사)도 함께 세상에 내놓았다.

수좌복지 후원이라는 부제가 붙은 이번 전시에서 스님은 달마도, 포대도, 한산습득도, 산수만행도 등 다양한 장르의 선화들을 선보인다. “많은 수좌들이 선방에서 용맹 정신을 하지만 병이 들면 대중생활을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토굴에서 혼자 힘들게 정진하며 어렵게 공부하다가 사라져가는 경우가 많죠. 이런 안타까운 현실 때문에 수좌복지회가 만들어졌죠. 저도 이번 전시를 통해 수좌 스님들을 돕는 데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스님은 현대 시대 재학생 인생의 의문을 풀기 위해 전장 스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구도자의 길을 걷게 되었다. 용화사, 범보선원, 범사 등에서 참선수행을 하고 때로는 전국을 헤매며 만행을 하기도 했다. 이렇게 수행을 하던 중 건강에 무리가 왔고 안국사에서 머물며 수행의 방편으로 선화를 그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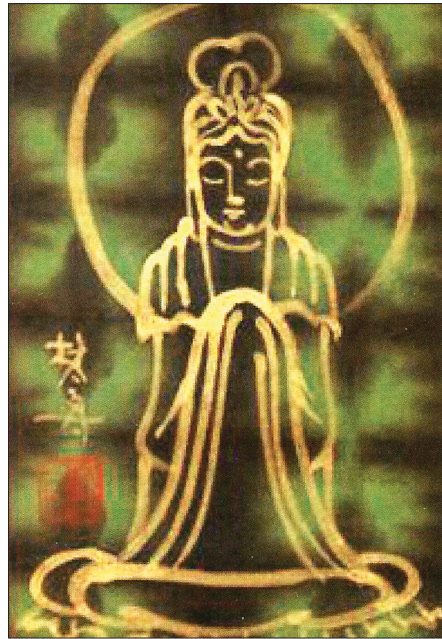
게 된 것이다.

오랜 시간 선화를 수행의 방편 삼아 정진하던 스님은 선화를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붓을 고안해냈다. 그리고 10여년의 고생 끝에 옷칠선화 개발에 성공했는데 이 과정에서 희석제의 독가스를 무방비로 흡입, 생사의 경계를 헤매는 병에

병마 이기고 삼매의 경지서 작업한 달마도 포대도 등 300여 점 전시 수좌복지 후원 위한 전국 순회전 저서 <나를 찾아 붓길...> 발간도

걸리게 된다. 스님은 “웃이 올라 목이 가려 운데도 고행 정진이라 생각하고 작업을 계속했는데 이것이 몸에 무리를 준 것 같다. 이번 전시에서는 건강상의 문제로 옷칠 작업을 많이 하지 못했고 대부분 선묵화를 보여줄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스님은 이번 기회를 통해 무분별하게 난무하고 있는 선화의 개념을 정립하는



수좌복지 후원을 위한 ‘범주 스님 선묵 회고전’이 8월 29일~9월 8일 조계사 나무갤러리에서 열린다. 왼쪽은 옷칠로 완성한 ‘관음도’ 오른쪽은 ‘포대도’

계기를 삼고자 한다. “요즘 달마도가 상업화 되면서 부적처럼 사용되는 달마도가 선화인 것처럼 인식되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선화는 선정의 집입니다. 붓에 정신을 집중해서 선묵화를 그리다 보면 잡념이 사라지고 정진력이 깊어진 만큼 마음이 맑아지고 필력이 강해집니다. 나아가 삼매 속에서 선기가 발생하여 이것이 작품에 스며



들죠. 곧 무념의 상태에서 나오는 그림만이 진정한 선화인 것입니다.” 스님은 이번 서울 전시 이후 울산 부산 대구 등으로 전시를 이어 나갈 예정이며 선화의 참뜻을 대중에게 알리기 위해 제자 양성에도 매진할 예정이다. 또한 전시와 함께 발간한 <나를 찾아 붓길>은 1부 회고록, 2부 선화에 대한

정리, 3부 인터뷰 등으로 구성되었다. 1부 회고록에서는 스님의 한평생이 기록되어 있는데 청년기의 방황, 전장 스님 문화로의 출가, 수행, 미국에서의 포교활동, 귀국 후의 활동이 그려진다. 2부에서는 40년 동안 선화를 그리면서 공부하고 몸으로 느낀 점이 담겨 있다. (054)535-0378 정혜숙 기자 bwjns@hyunbul.com

크로스오버 공연으로 불교문화의 새 장 열고파

창단 10주년 맞은 제니스 불교문화원 기념공연 ‘아름다운 동행-신작찬불가의 향연’

불교음악의 발전과 포교를 위해 노력해 온 제니스불교문화원(원장 박성규)이 창단 10주년을 맞아 클럽부피스타를 창단하고 기념 음악회를 갖는다. ‘아름다운 동행-신작찬불가의 향연’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공연은 8월 30일 저녁 6시 용산 아트홀 대공연장 미르홀에서 전석 무료초대로 진행된다. 출연진으로는 제니스불교문화원 산하 단체인 제니스합창단, 클럽부피스타 등을 비롯해 정주 관음사 극락조합창단, 전명신 박규리 등이 참여 다양한 장르의 찬불음악을 선보인다.

해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활동해 온 제니스 불교문화원의 지난 10년을 기념할 수 있는 공연으로 진행될 예정”이라며 취지를 전했다. 이번 공연에서는 부처님 향기, 강녕하소서, 무상하네, 그리운 어머니, 인연의 끈 등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선보일 예정이다.

클럽 부피스타 창단으로 현대 전통 아우르는 공연도



제니스 불교문화원이 창단한 클럽 부피스타 멤버들이 연습 중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이들은 앞으로 다양한 장르의 음악으로 불교음악을 알리나갈 예정이다.

장려상 수상 등 다양한 부문에서 그 실력을 인정받아 왔다.

새롭게 창단한 클럽 부피스타(Club Buddistar)는 남성불자들이 이루어진 팀으로 실용음악, 성악, 퍼커션 등 다양한 장르를 소화해 불교음악의 새로운 장을 열어나갈 예정이다. 박 원장은 “시대의 흐름을 선도하고 체험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니스불교문화원

은 다양한 파트의 팀들을 운영해 불교음악과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클럽 부피스타는 스타 불교신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클래식과 현대음악 장르의 조합을 통해 세대를 아우르는 찬불가를 알리어나가고자 한다. 더불어 음반제작, 정기공연, 기획공연, 순회공연, 봉사활동 등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혜숙 기자 010-336-8455

“내 안의 소리 귀 기울이면 사랑이 꽃 피죠”

성악가 정행 스님 찬불 명상 음반 출시

35년 명상과 참선으로 정진해온 소프라노 정행 스님(행복선원장)이 찬불명상 음반 ‘내안의 소리’를 내놓았다. 이번 앨범에는 만다라화, 좋은 인연, 청산은 나를 보고 등 스님이 평소 좋아하던 찬불가는 물론 직접 작사 작곡한 신곡 ‘내 안의 소리’도 함께 담았다.



“내 안의 소리를 들어보아요. 사랑이 꽃을 피우네요. 눈을 감고 들어보아요. 내 안의 진실한 소리를 들이라는 가사가 담긴 이 곡은 내면의 눈으로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고 내안의 나를 찾을 것을 말해준다. “찬불가를 통해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고, 불자님들의 성불인연 짓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원력으로 이번 음반을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명상음악을 감상하듯 흐르는 노래들을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자연스레 내 안에서 흥얼거림이 일면 함께 따라 부르셔도 좋습니다. 그 흥얼거림 속에서 곡조들이 어느새 부처님 말씀이 되어 불자들의 가슴에 새겨지고 나도 모르게 부처님 말씀처럼 살게 되시길 기원합니다.”

늦은 나이로 출가해 문묘사 강원을 졸업한 스님은 카네기홀에서도 연주한 뛰어난 실력파이기도 하다.

“대학시절부터 오소리라느니쉬의 명상을 공부하다가 우리음악의 근본인 범패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효종선원에서 범패를 배웠고 찬불가도 꾸준히 불러왔죠. 미국에서 활동을 하며 명상을 지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의 삶이 너무 감사해서 부처님 은혜에 보답하고자 출가를 하게 되었고 음성공양을 통한 포교의 원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현재 스님은 선원장을 맡고 있는 행복선원에서 찬불가의 노랫말을 통해 불교를 공부하는 특별한 법회를 열고 있기도 하다. 정혜숙 기자

대원문재현 선사님의 72번째 저서 출간!

대원문재현 선사님의 72번째 저서 출간! 해인사 용성선사로 이어진 강맥을 한 몸에서 이어진 법맥과 대한불교조계종 수덕사 만공·전강선사로 이어진 법맥과

바로보인 선문염송 제29권

세계 최대의 공안집인 선문염송 전 30권중 29권 출간! 수산, 분양, 섭현선사 등의 공안이 실려있다. 선문 사상 최초로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한 척도 빠짐없이 평하고 송하여 공안참구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마음대로 앉아 죽고 서서 죽고

우리들 모두 생사를 초월하여 해탈할 수 있다는 것을, 마음대로 앉아 죽고 서서 죽기를 자재했던 이분들이 증명하고 있다. 이 책의 열반상들은 인류에게 있어서 큰 용기와 힘, 영원히 시들지 않는 향기가 될 것이다.

바른 불자가 됩시다

바른 신앙과 바른 수행의 길잡이! 누구나 궁금한 33가지 현대인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명쾌한 진리의 이야기!

도서출판 문젠 (구, 바로보인) ☎ 031-534-3373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한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30년 전통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응축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이목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구분	제품명	가격
9원 구분	가 루 자 죽 염 125g	40,000원
	가 루 자 죽 염 230g	73,000원
	알 갠 이 자 죽 염 125g	43,000원
	알 갠 이 자 죽 염 230g	78,500원
휴대용 알갱이 자 죽 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2원 구분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 자색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색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동침교육 · 숙박휴양

건강힐링캠프 [경기도 양평]

원장 권병석

암환자 전문 영양소수시 건강상담 유기농 죽염식단

황토 통나무집에서...

본연의 자가 면역력을 높여 내몸 스스로가 자연치유 할 수 있도록 돕는 자연치유요양원

http://healthycamp.co.kr (검색창에서 '건강힐링캠프'를 치세요)

전화 070-8884-8599 건강토론